



## SK 전력분석팀 "이승엽, 부담감 떨쳐야"

송고시간 | 2008-11-04 22:27









장현구 기자

기자페이지

SK 전력분석팀 "이승엽, 부담감 떨쳐야"

(사이타마<일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일본프로야구 챔프 결정전인 일본시리즈를 현장에서 관전한 프로야구 한 국시리즈 우승팀 SK 와이번스의 전력분석팀은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부담감을 떨쳐 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달 31일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잠깐 휴식을 취한 SK 전력분석팀 4명은 이날 요미우리-세이부의 일본시리즈 3차전 이 열린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세이부 돔을 찾아 아시아시리즈에서 격돌한 가상 상대를 두고 '현미경 분석'에 나섰 다.



전력 분석에서는 일본 여느 팀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SK 전력분석원들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백 스톱 뒤쪽에 자리를 잡아 비디오 캠코더를 켜고 요미우리와 세이부 선수들의 장단점을 자세히 파악했다.

노석기 SK 전력분석팀 대리는 "1-2차전을 못 보고 이날 막 승엽 이를 봐 설명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승엽이가 잘해야 한다는 부 담감에 타이밍을 못 잡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노 대리는 "막상 승엽이가 때려야 할 공과 버려야 할 공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타이밍이 어정쩡해 좋은 타구가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엽이 8회 호시노 도모키의 몸쪽 변화구에 체크 스윙을 하다 삼진으로 돌아선 게 대표적인 본보기

이승엽이 이날 우전 안타로 일본시리즈 첫 안타를 신고했지만 "변화구 타이밍에 직구만 계속 들어와 고전했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한다.

노 대리는 "이승엽이 부담감을 지우고 목적구가 들어올 때 가볍게 방망이를 돌리면 강한 모습을 되찾을 것 같다"고 전망 했다.

이승엽의 통역 정창룡씨는 "승엽 형이 도쿄돔 못지않게 세이부 돔에서 타격하는 것을 즐긴다. 타구가 잘 뻗어가기에 좋 아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승엽도 "실전을 치러보니 타구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타이밍만 잡으면 된다"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조건은 나쁘지 않기에 노 대리의 조언처럼 이승엽이 부담감을 버리고 가볍게 맞힌다는 생각으로 타격해야 바라는 홈런도 터뜨릴 수 있 다.

전망은 밝은 편이다. 5-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5차전에 세이부는 오른손 투수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다. 4차전에 서는 기시 다카유키(세이부)와 세스 그레이싱어(요미우리)가, 5차전에서는 1차전에서 격돌했던 와쿠이 히데아키(세이 부)와 우에하라 고지(요미우리)가 리턴 매치를 벌인다.

좌투수 공략과 타이밍 싸움에서 고전했던 이승엽이 이날 첫 안타를 계기로 타격감을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그는 올해 우투수를 상대로 타율 0.296을 때려 좌투수(0.194)와 승부했을 때보다 훨씬 좋았다.













##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대포 싸움이 승패를 가른 만큼 4-5차전에서 우투수와 대적할 이승엽에게 거는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cany9900@yna.co.kr 제보는 키카오톡 okjebo				We Do Technolog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지	H-재배포 금지> 2008/11/	04 22:27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b>▶</b>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	가 학대했니 [영상] 곡사포·수송 결국 우크라에	헬기·장갑차美,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ul><li>영상</li></ul>
				▶ 01:59
				[영상] 윤석열, 인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압뉴스











sns **f** 





Ö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